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 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Decorative Design of the Silla Buddhist Reliquaries in the 7~8th Centuries

김상태* / Kim, Sang-Tae

Abstract

We study, in this paper, on the decorative design of the Treasure-architectural form for the Silla Buddhist reliquary and this research went through the observation on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 Song-Lim-Sa, the Eastern-Western three floor pagodas in the Kam-Eun-Sa, the three floor pagodas in the Bul-Guk-Sa and the reportedly discovered Nam-Won.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se 5 Reliquaries, when compared with those of China and Japan in the same period, they worshiped the Buddhist reliquary as a Buddhist God itself and put them as a part of the architectural decoration, being installed in the construction forms. In the form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chitecture, we can see those having been designed with very detailed and brightly decorated form. The Buddhist reliquaries in the Song-Lim-Sa and Kam-Eun-Sa, the most important ones in this research, were in a royal palace shape having completely the altar part, interior space part, and the ceiling part, which inform us the whole structure of the architecture in details. In particular, for the case of Kam-Eun-Sa, the columns in the shape of bamboo trees, the expression of the gates, the terrace of double parts formed of word-shape Man(卍), and the statue of a general with superhuman ability in the shrine explain us the description of the Gyun-Bo-Tap-Pum of Lotus Sutra. After all these researches, we conclude that the Buddhist reliquaries in form of the Treasure-architecture represented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same period as a form of industrial arts and we can see that they tried to use all of their highly skilled and talented methods to describe the Buddhist Pure Land.

키워드 : 건축의장, 사리장엄, 사리, 한국고대건축

Keywords : Architectural Decorative Design, The Buddhist Reliquary, Sarira, Ancient Architecture in Korea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고대건축의 연구는 고대사 문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함께 중국의 사서 등과 미술사적 회화와 조각, 공예 그리고 건축유적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었다. 미술사적 사료에는 주로 벽화고분에서 나타난 생활벽화에서, 고분 등에서 출토되는 토기류, 탑과와 사리장엄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사리장엄의 연구는 주로 미술사분야에서 장식연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사리장엄중 보각형사리기의 경우 건축형태의 사리장엄으로 건축사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적 연구에 있어 각기의 사리장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리장엄을 통한 건축형식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건축사분야의 양윤

식박사와 미술사분야의 신대현박사의 연구로 주로 감은사 사리장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형식의 사리장엄을 통하여 동시대의 건축형식과 의장 및 장식의 적용과 표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리장엄을 통한 건축연구는 건축유구이외에 미술사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추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7·8세기의 사리장엄 중 건축의 형태인 전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각형사리기이다. 송림사 사리장엄,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 전 남원 발견 사리장엄 등 총 5기의 보각형사리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사리장엄의 정의, 유형분류, 동시대의 동아시아 사리장엄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보각형사리기의 건축요소를 분류하여 조사한다. 또한 각 대상에 대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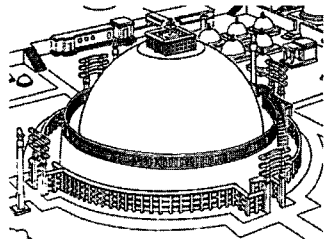
* 정희원, Research Schola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CLA

석들에 따른 비교·분석 및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건축형식, 구조, 의장 및 장식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상 사리장엄의 교리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2. 사리장엄의 의미와 분류

2.1. 사리장엄의 정의와 소의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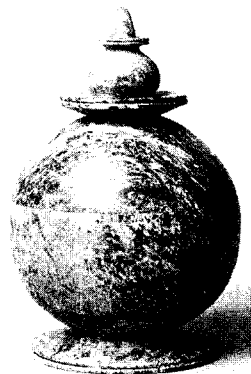
사리는 석가모니부처가 열반하여 다비를 하였을 때 남은 유골을 의미한다.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스투파는 불교건축의 시원이 되었으며, 스투파는 중국에 이르러 탑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리를 보관하기 위하여 구성된 탑은 불상을 모시는 불전과 함께,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탑과 불전의 상호관계는 가람 배치형식 분류에 있어 기본이 되고 있다. 이는 불탑의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불탑의 중요도에 따라 1탑식 가람에서 2탑식가람, 그리고 무탑식가람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¹⁾



<그림 1> 인도의 산처스투파(B.C.3~1)

사리는 크게 전신사리(全身舍利)와 쇠신사리(碎身舍利)로 나뉘는데, 전신사리는 토장(土葬)시의 유골을 의미하며, 쇠신사리는 화장(火葬)하였을 때의 유골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리는 쇠신사리를 의미한다. 또 다른 분류로는 진신사리와 범신사리로 나누어지는데, 진신은 부처의 유골을 의미하며, 범신은 경전을 의미한다.²⁾

사리를 봉안할 때는 탑안에 사리공(舍利孔) 또는 사리실(舍利室) 등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사리를 담은 사리기(舍利器, 또는 사리함)를 넣는데, 사리기는 여러 가지 재질과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행위 및 결과, 사리봉안에 사용된 용기를 총칭하여 사리장엄(舍利莊嚴)³⁾ 또는 사리장엄구라 말한다. 동아시아의 사리기는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되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개되었다. 사리장엄에 대한 교리적 배경은 『아미타경』, 『반야경』, 『법화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리고 『전신사리경』이며⁴⁾, 이중 대표적 소의경전(所依經典)⁵⁾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인도 피프라바 대탑
남석제 원구형 사리용구(B.C.4)

<표 1> 범신사리로 탑파에 봉안된 경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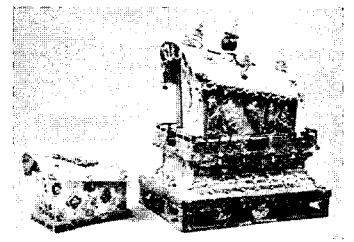
경전명	봉안된 탑명	봉안처 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황복사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 창림사 삼층석탑, 산청 석남사 비로자나불 대좌, 함천 해인사 길상탑	6개소
금강반야바라밀경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함천 해인사 길상탑	2개소
보현인다라니경	개성 총지사, 평창 월정사, 예산 수덕사	3개소
법화경	개성 남계원 칠층석탑, 함천 해인사 길상탑	2개소
연기법송	황룡사, 보원사, 석장사	3개소

(출처: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해안, 2003, p.189)

2.2. 사리장엄의 유형분류

사리장엄구의 유형분류는 보각형, 상자형, 호합형, 복발탑형, 다각당형, 그리고 관함형으로 분류한다.⁶⁾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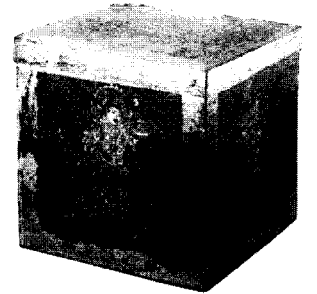
보각(寶閣)형은 일반적으로 전각형으로 표현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상여(喪輿)형, 누각(樓閣)형, 상장(牀帳)형 또는 보장(寶帳)형으로도 알려져 있다.⁷⁾ 건축적 표현이 가장 많이 담긴 보각형은 전각에 보물 등으로 치장된 형태로, 일반적 건축 구성과 같이



<그림 3> 중국 경산사
사리내함(상장형태)의 보각형 사리장엄

기단부, 내부공간부, 지붕부로 나누어져 있다. 내부공간부는 건물의 내부와 같이 사리의 봉안처로, 지붕부는 천개(天蓋)로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건축물을 공예적 표현으로 사람이 건축물에서 생활한 것과 같이, 사리 또한 부처가 머물고 있는 전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표적 보각형 사리기로는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와 송림사 사리기,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외함이 있으며, 중국 경산사 사리내함도 보각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상자(箱子)형은 이름 그대로 상자형태의 사리기를 말한다. 상자형은 보각형에서 유래되어 단순한 상자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뚜껑은 천개를 표현하였으며, 기단과 내부공간부를 간략화 한 것이다. 사례로는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외함과 나원



<그림 4>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외함

1)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 pp.93~95
 2) 국립중앙박물관-강우방, 『佛舍利莊嚴』 - 『佛舍利莊嚴論』, 도서출판 김문사, 1991, p.131
 3)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해안, 2003, p.13
 4) 국립중앙박물관-강우방, 앞의 책, pp.136~150
 5) 소의경전(所依經典)이란 어떠한 교파나 사상의 주된 배경 경전이나, 그리고 탑파와 불상의 조성배경이 되는 경전을 의미한다.
 6) 신대현, 앞의 책, pp.223~326
 7) 신대현, 앞의 책, p.243

리 오층석탑 사리기,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금동 사리판, 황룡사 구층목탑지 금동 사리의함,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금동 사리의함 등으로 많은 사리의함이 이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 예는 섬서성 남전현 출토사리장엄구이며, 일본은 승복사탑사리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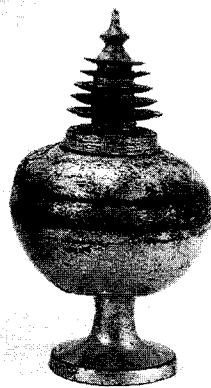
호합형은 호(壺)형과 함(盒)형을 합한 것으로 병이나 그릇 모습을 사리기를 말한다. 호형은 말 그대로 병의 모습으로 어깨가 둥글게 벌어지고 함체가 완만하게 굴곡이 되어 내려가며, 주둥이 위에 뚜껑이 얹혀진 형태이다. 함형은 뚜껑이 덮여있는 주둥이가 비교적 넓고, 키가 낮은 그릇모습이다.



<그림 5> 갈항사지 서탑 사리호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인 상대와 주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의 은제 사리호 및 금동 사리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동제 사리호, 석남사지 납석 사리호,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 사리호 등 상자형과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리유형이다.

북발탑형사리기는 일반적으로 티벳에서 유래한나마탑 계통의 소탑과 연관되며, 함체 위에 놓이는 보륜형에 착안하여 보륜탑이라고도 한다.⁸⁾ 북발탑형은 B.C. 2세기 무렵 출현한 인도의 사리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예는 서인도 카우삼비 남쪽에 있는 소나리 제2탑 출토의 납석사리기가 있다.⁹⁾ 신라의 북발탑형은 인도의 형식과 같은 양식인데, 뚜껑 상부 장식물의 형태에 따라 탑형, 병형, 보주형 3종류로 나뉜다. 대표적 사례는 인도의 탁실라 출토사리기가 있으며, 신라는 황룡사 청동 사리호, 장연사지 삼층석탑 목제 금칠 사리호, 법광사 청동사리호, 호림박물관과 호암미술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의 북발탑형 사리기,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 사리기가 있다.



<그림 6> 호림박물관소장 신라 청동 북발탑형 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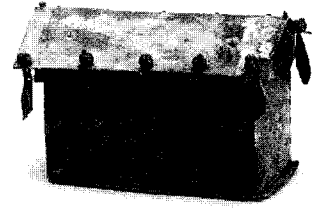
다각당형 사리기는 기본적으로 보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몸체가 육각, 팔각의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국 요와 송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목조건축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황룡사 구층목탑 출토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도리사 세존부도 금동 육각당형 사리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청동팔각당형 사리기, 문



<그림 7> 도리사 세존부도 금동 육각당형 사리기

경 내화리 삼층석탑 금동 팔각당형 사리기 등이 있다.

관함형은 관처럼 가로로 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리기로, 중국의 관형사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함을 제외하고는 안동 옥동 임하사 전탑지에서 발견된 은제 도금 사리의함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관함의 예가 적은 것은 불사리를 곧 불신으로 여겼던 인식이 있어, 유골을 안치하는 관형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⁰⁾



<그림 8> 임하사 전탑지 은제 도금 사리의함

3. 7-8세기 보각형 사리장엄과 건축

3.1.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엄

동아시아의 사리장엄은 중국의 탑, 불전 등의 불교건축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개되는 바와 같다. 특이할 점은 한반도, 즉 신라의 사리장엄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조형미가 화려하며 조형기술 또한 뛰어난데, 이는 감은사와 승림사의 사리장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2>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엄 비교표

시기	사리장엄구(사리기)		
	섬서성남전현사리장엄구(7C초)	감숙성대문사탑사리장엄구(691)	법문사 영장 도금 쌍봉문은관(708)
수·당			
신라	감은사 동탑 사리장엄구(682)	황복사삼층석탑사리의함(692)	진 전 남원 발견 금동 보각형 사리기(8~9세기)
일본	일본 법통사 5층탑사리기(7C후)	일본 승복사탑 사리기(7C후)	일본당초체사사리전(8C중)

(사진출처 :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8) 장충식, 「금동보륜탑의 조사」, 『考古美術』 136·137합집, 1978, pp.134~135, 신대현, 앞의 책 재인용

9) 신대현, 앞의 책, p.303

10) 신대현, 앞의 책, p.326

본 연구대상 시기인 7세기 말과 8세기 초의 사리장엄은 중국
의 경우 수(隋)와 당(唐)의 시기로 불교의 부흥을 꾀한 수문제
의 인수사리기(仁壽舍利器)와 당대 측천무후의 법문사(法門寺)
가 대표되고 있다. 그 형태는 상자형과 관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경우 송림사(松林寺) 5층전탑의 사리기와 감은사
(感恩寺) 동·서 석탑의 사리기, 그리고 황복사지(皇福寺址) 삼층
석탑 금동사리외함으로 보각형과 상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7세기 후반의 법륜사(法隆寺) 5층탑 사리기와 송복사탑
(崇福寺塔) 사리기, 그리고 8세기의 당초제사(唐招提寺) 사리전
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리기는 주로 상자형과 호함형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당초제사 사리기의 경우 보각형으로 신라보다 반
세기 이상 늦은 시기여서 신라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를 통한 7·8세기 동아시아 사리장엄의 비교를 보면, 수와 당
의 중국은 사실적 표현으로서의 관(棺)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라의 경우 전각모습의 보각형과 함에 표현된 음각명문을 통
하여 건축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신라의 형
식을 함께 수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¹¹⁾

3.2. 신라시대 사리장엄과 보각형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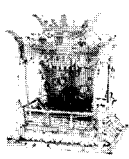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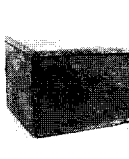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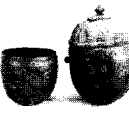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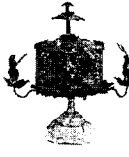

고대 한반도에는 불교의 유입과 함께 불탑의 조성이 일반적
인 가람구성의 법식이었다. 불탑이 있다면 그 탑 안에 봉안되어
야 할 사리가 있으며, 사리는 반드시 사리기에 의하여 보호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견되었거나, 혹은 문헌상 그 흔적이
보이는 사리나 사리기는 거의 신라에서 제작되었거나, 통일 후
의 시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고구려나 백제의 가람 유적지에는
사리기를 놓았던 사리공이 발견되어, 불탑조성과 함께 사리기의
제작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7·8세기 통일전후기의 신라 건축은 외래문물의 적극수용과
효율적인 행정운용을 통해 국제수준의 세련된 건축을 만들면서,
신라 고유한 건축적 독창성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이룩한다.¹²⁾
특히 석재를 이용한 석탑 건립은 신라 건축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데, 그 석탑안의 사리기 또한 신라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나
타내고 있다.

7·8세기의 신라 사리장엄은 <표 3>과 같이 12개의 사례가
보이고 있다. 사리장엄의 유형별로 보면 보각형은 5기(감은사는
동탑과 서탑에 각기 1기의 사리기가 출토), 상자형 5기, 그리고
호함형 3기이다. 사리장엄의 유형분류에서의 복발탑형, 다각당
형, 그리고 관함형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이중 복발탑형과
다각당형은 9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며, 관함형은 2·2절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1기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보각형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신라의 사리
장엄은 불사리의 장엄을 매우 화려하고 제작에 있어 심혈을 기
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8세기는 호국불교의 발원으로 인한
통일전쟁의 승리라는 국가적 차원의 불교 부흥을 가져왔다. 중국

<표 3>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의 시기별 분류표

번호	1	2	3	4
사리 기명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전 황복사지 삼층서탑 출토 금동 사리외함	불국사 삼층석탑 금동 사리외함
년도	7세기(8~9세기) ¹³⁾	682년	692년, 706년	751년
사리 기				
유형	보각형	보각형	상자형	보각형
지역	경북 칠곡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번호	5	6	7	8
사리 기명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기 중 은제 사리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청동 사리호	석남사 출토 영태2년명 납석제 사리호	전 안성 출토 영태2년명 사리장엄
년도	751년	758년	766년	766년
사리 기				
유형	호함형	호함형	호함형	상자형
지역	경주시	경북 김천	경남 산청	경기도 안성
번호	9	10	11	12
사리 기명	영양 삼지동 묘전석탑 출토 사리석함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기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년도	7~8세기	8세기	8~9세기	8~9세기
사리 기				
유형	상자형	상자형	보각형	상자형
지역	강원도 영양	경주시	전북 남원	전북 익산

(참고 :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과 차별화된 신라고유의 건축배치와 형식, 그리고 의장수법이
발전하였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건축수법은 일본 하쿠호(白鳳,
689~719)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¹⁴⁾

보각형사리기는 중국의 관함형과 다르게, 건축 형식과 의장표
현이 완벽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신 또는 귀인이 좌정(坐定)

11) 일본의 사리장엄은 상자형과 호함형의 경우 중국의 형식이, 전각형은
신라의 형식과 매우 밀접하게 표현되어 있다.

1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73

13)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은 전탑양식과 사리기의 시기를 동일시하여 8~9
세기 제작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립박물관, 『佛舍利莊嚴』

14)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의 相關關係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pp.86~87

하는 공간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의 왕과 귀족은 실내공간에서 상(床, 평상 혹은 침상)에서 거주하였음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중국 돈황석굴벽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보각형 사리기의 출현은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기법이 사리장엄에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9>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묘사된 평상위에 작성한 모주(안약 3호분)

3.3. 보각형사리기에 표현된 건축구성요소

본 논문의 주연구대상인 7·8세기 보각형사리기는 모두 5기로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불국사 삼층석탑 금동 사리외함, 전 남원 발건 금동 보각형 사리기이다. 5기의 보각형 사리기는 모두 기단부, 내부공간부, 지붕부의 3단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중 송림사와 감은사 사리기는 완전한 건축형식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기단부, 내부공간부, 지붕부의 3단계 분류를 통한 보각형사리기의 건축형식표현에 대하여 분석하겠다.

(1) 기단부

보각형사리기의 기단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식은 수미단의 형식을 취한 점이다. 이는 다른 형식의 사리기와 뚜렷이 구분되는데, 연화문의 조각과 안상(眼象)이 수미단 혹은 수미좌의 구조를 의미한다. 송림사의 기단은 2단구조로 상당히 간략화된 모습을 보인다. 기단부 1단은 목재에 금판을 놓아 못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구사하여 그 정교함이 떨어지나, 1단의 기단부 위의 연화문의 복련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일본의 법류사 금당의 석가삼존불좌상의 수미단의 구조와 일치하며 지대석 위의 연화문대가 첨가된 형식의 초기형태라 볼 수 있다.¹⁵⁾

감은사 동·서 사리기의 기단은 같은 형태이다. 3단구성의 기단부로 지대석위에 복련이 송림사와 같이 배열되어 있고, 지대석 상부위의 간석은 서탑의 경우 모서리를 둥글린 사각의 감실을 두어 신장과 보살을 배치하였는데, 동탑은 감실의 형태를 안상의 형태로 하였다. 이는 면에 새로운 공간을 삼입함으로 입체감을 더욱 배가시키는 입면효과를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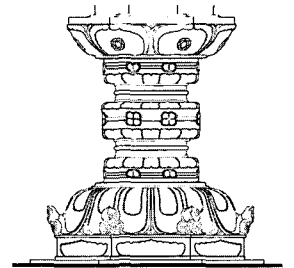
불국사 삼층석탑의 금동 사리기의 기단은 보각형사리기에서 상자형사리기로 전환되는 사리기 발전과정의 중간단계로 기단부의 간략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국사 사리기에도 기단면을 안상 형태로 뚫어 수미단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 남원 발건 금동 사리기는 신라시대 보각형사리기중 후대의 것으로 그 형태가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기단의 모습은

<표 4>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의 기단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서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동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불국사 삼층석탑 금동 사리외함	전 남원 발건 금동 사리기

중대 8엽원의 모습을 형상화 시킨 8각의 지대와 하대석, 간석의 보주화, 그리고 연꽃잎의 형태 등은 8~9세기에 유행했던 이형(異形)탑과 이형석등의 기단과 간주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형술의 변화로 보인다.



<그림 10> 남원 실상사석등의 기단과 간주 (홍익대 건축사연구실 실측 복원도면)

(2) 내부공간부

보각형사리기의 내부공간부는 사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건축에서의 실내공간을 의미한다. 6면의 Cube 공간 모습을 하고 있는 내부공간부는 송림사 사리장엄과 감은사 동탑사리장엄의 경우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개방된 공간의 상장(牀帳)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감은사 서탑사리장엄의 경우 기둥과 천개가 없어 상부가 노출된 모습을 보여 동탑사리장엄과 차별성이 보이고 있다. 이는 동탑과 서탑의 차이점을 교리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¹⁶⁾

<표 5>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의 내부공간부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서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동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불국사 삼층석탑 금동 사리외함	전 남원 발건 금동 사리기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외함은 4면이 보상(寶相)과 당초(唐草)문으로 투각(透刻)한 금동판으로 구성하였다. 전 남원 발건 금동 사리기의 경우 내부공간부가 양면으로 받쳐져 마치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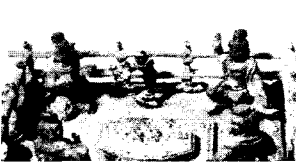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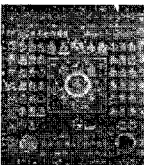
사리를 보관하는 기능의 내부공간부 내부는 사리가 봉안된 사리병을 놓기 위한 보통 8장으로 구성된 연꽃대가 중앙에 놓

15) 양윤식,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사리장치의 건축적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p.189~190

16)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에서는 유마경의 교리적 배경으로 해석하였으며, 김상태의 박사학위논문 「新羅時代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의 相關關係 研究」에서는 법화경의 교리적 배경으로 해석하였다.

이는데, 이는 마치 상장 중앙에 임금이나 귀족들이 편안하게 좌정할 수 있도록 한 방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표 6>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의 사리장엄 평면과 만다라배치

감은사 서 삼층석탑 사리장엄의 주악배치와 중앙의 연대좌	감은사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의 평면	태장계만다라
		

<표 7>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의 전개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	감은사 동 삼층석탑 금동 사리장엄	불국사 삼층석탑 금동 사리의함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기
			

평면에서의 특이할 점은 감은사 동·서탑사리기에서의 경우인데, 평면배치가 마치 만다라의 배치와 같아, 불사리를 장엄함에 있어 불국토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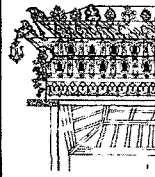


(3) 지붕부

보각형사리의 큰 특징은 지붕부인 천개(天蓋)¹⁷⁾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사리장엄 중 신라의 천개장식이 가장 정교하면서도 화려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신라 보각형사리의 천개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이중의 지붕구조를 가진 천개와 사모지붕형의 천개이다.

송림사와 감은사동탑사리의 지붕은 연화형의 이중처마구조로 되어 있으며, 처마가 아래로 향한 일반적 구성방법이 아닌 위로 뻗쳐있는 모습이 매우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처마가 위로 뻗치는 모습은 둔황과 운강 등의 초기 불교 회화 및 조각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불상위에서 햇빛을 막고 있는 천개는 그 장식이 연꽃잎과 보망(寶網), 보주(寶珠), 영락(瓔珞), 그리고 번(幡) 등으로 하게 된다. 특히 연잎과 번장식은 모든 천개장식에 빠짐없이 사용되었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연잎과 번의 모습을 처마가 위로 향한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사례는 고구려고분벽화의 상장의 모습<그림 9>과 중국 둔황석굴과 영장의 지붕모습, 그리고 일본 법륜사 금당 보개의 예를 들 수 있다.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의함과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의 천개는 상자형의 지붕과 흡사하며, 이는 보각형에서 상자형으로 발전 하는 과정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의 천개위에는 우산모습의 보개가 있어 천개장식이 산개로부터의 영향임을 입증하고 있다.

<표 8> 보각형사리의 천개구조 관련 회화 및 건축사례

중국 담연선사입락도 (둔황 323)	중국 둔황 359벽화의 장형감(帳形龕)	중국 법문사 백옥석 영장(靈帳)	일본 법륜사 금당 석가삼존불좌상 보개
			

출처 :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신대현 「적멸의 공전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4. 신라시대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

신라시대 보각형사리의 건축의장 및 장식 요소는 구조·공간적 의장요소인 기둥, 난간, 감실, 그리고 장식적 요소로 문양과 세부 디테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4.1. 신라 보각형사리의 구조·공간 의장요소

(1) 기둥

고대건축의 기둥에 관한 연구는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나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보각형사리의 기둥요소에 대한 연구는 특수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의 죽절형 기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밖에 송림사 금동 사리장엄의 기둥은 일반형이며, 불국사와 전 남원 발견 사리기는 4면이 투각된 면구성으로 모서리는 4면이 만나게 하여 의미상 기둥표현을 하였다.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기는 완벽하게 네 모서리를 기둥처리하여 개방된 공간을 만들었으며, 그 기둥안에 사리보관방과 사천왕, 그리고 승상들을 배치하여 건축공간구성을 하였다. 특히 죽절형의 기둥은 기둥의 세장하게 보여 수직적 상승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둥을 장식화 하여 지붕인 천개를 마치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¹⁸⁾

천개를 받치고 있는 대나무 형태의 기둥은 불국사 다보탑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둔황 제361굴(中唐¹⁹⁾)의 이불병좌 탑에서도 나타난다. 이 다보탑들의 시기를 보면 모두 비슷한 시기로 감은사는 7세기 말기, 불국사는 8세기 중기, 그리고 둔황 제361굴은 8세기에서 9세기이다. 이러한 대나무 기둥의 표현은 세장한 기둥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며, 견보탑품에 묘사된 하늘로 상승하는 다보탑을 형상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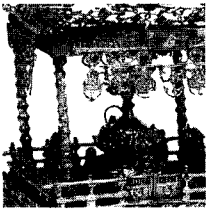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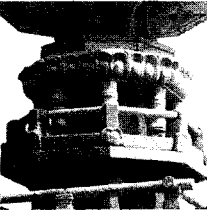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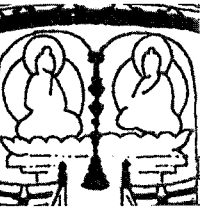
17)천개는 보개(寶蓋)라고도 부르며, 석가모니 제세시 야외의 설법장에 갈 때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자 산개(傘蓋)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불상 조성 시에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신대현, 앞의 책, p.267

18)양윤식, 앞의 책, pp.194~197

19)唐代(581~907)의 시대구분 : 初唐(618~690), 盛唐(690~712), 中唐(712~859), 晚唐(860~907)

위한 수법으로 사료된다. 즉 감은사의 교리적 배경이 법화경의 견보탑품이라는 연구결과와 연계가 된다.²⁰⁾

<표 9> 다보탑에 표현된 죽절형 기둥장식

감은사 등 삼층석탑 사리장엄 죽절형 기둥	불국사 다보탑의 죽절형 기둥	중당제361굴밀종스투파시탑의 죽절형 기둥장식
		

(2) 난간

보각형사리기에서 난간이 나타난 예는 송림사와 감은사 동·서탑의 사리기로 3기의 사리탑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림사 사리기의 난간은 당시대에서 보여지는 만(卍)자형 난간으로 안압지출토 난간부재, 실상사백장암 탑및 석등에 조각된 난간, 대광광불화엄변상도의 난간구성과 같은 형식의 것이다.

<표 10> 만(卍)자형 난간이 표현된 신라시대 회화 및 건축

송림사 만(卍)자형 난간	안압지 출토 만(卍)자형 난간 부재	백장암 삼층석탑 3층 난간도면	대광광불화엄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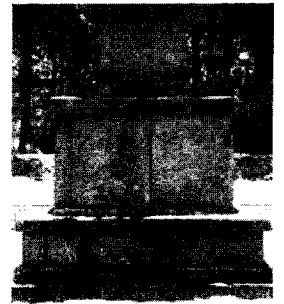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의 난간구조는 송림사 사리기와 같은 2단 구조로 동자주를 이용하여 세웠으며, 모서리는 엄지동자로 구성하였다. 송림사 사리기의 만(卍)자형 난간 의장 수법을 제외하고서는 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탑과 서탑 사리기의 난간 구조는 서로 비슷하나, 동탑은 6칸의 구성으로 하였고, 서탑은 5칸으로 하였다. 이는 동탑사리기 서면의 문비를 내기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서탑에는 없는 문비를 동탑의 서면에 배치한 것은 법화경 보탑품의 다보탑(이불병좌)²¹⁾을 형상화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 다보탑에 표현된 문비(門扉)

감은사 동탑사리장엄 서면 문비	불국사 다보탑 문(입구)표현	중국 돈황석굴 이불병좌 표현 벽화	일본 만다라상의 이불병좌 문비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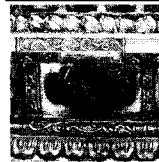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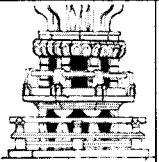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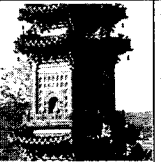

(3) 감실

감은사 사리기의 기단 하대와 상대사이에는 감실을 두어 외부로 노출된 공간구성을 하였다. 감은사 서탑의 경우 모서리를 둥글린 사각의 감실을 두어 신장과 보살을 배치하였고, 동탑은 감실의 형태를 안상의 형태로 하였다. 기단면에 감실을 두었다는 의미는 동시대의 일반적인 석탑과 그 형식이 같은데,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의 구조를 보면 기단면에 탱주 2기를 배치하여 기단의 한 면을 3개로 분할한 것과 같은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감은사보다 후대에 세워진 진전사지삼층석탑의 경우 감은사 사리기와 같이 기단면에 1기의 탱주를 두고 그 기둥사이의 면에는 팔부중과 같은 신장과 보살을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목조탑 혹은 건축을 석조화 시키는 데서 나타난 탱주의 기능을 사리기에서는 다시 입체적인 목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실에서도 죽절형 기둥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다보탑에 반드시 표현되어 교리적 배경이 법화경의 견보탑품이라는 연구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림 11> 양양 진전사지삼층석탑 기단면석 탱주와 신장조각

<표 12> 다보탑에 표현된 감실

감은사 등 삼층석탑 사리장엄 감실	불국사 다보탑의 감실	중국 이화원 다보탑의 감실	일본 고대 밀교 다보탑의 감실
			

4.2. 신라 보각형사리기의 문양장식 의장요소

송림사 사리기에서 보이는 문양(紋樣) 장식은 간단한 제작기법에 의하여 연잎과 그물형의 천개장식을 보이고 있다.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의 문양은 기단부 하대의 연잎문양, 귀꽃장식이 있으며, 중대와 상대에는 인동당초문의 문양대가 기둥과 상·하방에 장식되어 있다. 내부공간부 바닥 중앙에는 중대8엽의 문양이 있으며, 사리병의 수정보주는 금동 불꽃문양장식 4장이 발견되었다. 감은사 사리기의 문양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천개장식으로 천개하부에 배모양(舟形)의 세로장식과 꽃무늬장식, 화염문,

20)김상태, 감은사의 사리장엄과 2탑구성원리에 관한연구, 건축역사연구 v.16 n.2, 2007

21)법화경 보탑품에서 기술에 의하면 서쪽에 위치한 석가여래가 동쪽 다보탑으로의 출입을 위하여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경전 표현에 의하여 다보탑에는 언제나 문비가 존재한다.

22)다보탑의 난간과 감실 표현. 妙法蓮華經 見寶塔品 第十一

여래좌상 3위 등 매우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장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구슬이음무늬장식, 당초문과 영락(嬰路)장식으로 천개의 장식을 하였으며, 이는 지붕의 건축형식을 공예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²³⁾ 그 밖에 인물상의 문양으로는 사천왕과 주악, 비천, 신장, 승상, 그리고 동자승 등 많은 문양이 있어 신라시대 문양연구에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12> 송림사 사리기의 천개 장식

<표 13> 감은사 동탑사리장엄에 나타난 문양과 장식

기단부의 문양	사리병 뚜껑장식문양	천개 하단 문양장식	사리의함 지국천왕

<표 14> 불국사 사리기와 전 남원 발견 사리기에 표현된 문양과 장식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기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기	
합체면 식물장식 문양	천개 연꽃장식	합체면 불상, 식물문양	연꽃과 사천왕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기와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기는 합체 네 면을 보살화와 인동당초문으로 투각(透刻)한 금동으로 장식화하여 붙였다.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기의 지붕은 처마를 반원형의 문양으로 잘라 표현하였으며, 그 밑에 보주형의 영락장식을 매달았다. 사모지붕위에는 보주가 여러 겹으로 된 연꽃장식을 꼭대기에 배치하였다. 전 남원 발견 금동 사리기는 장식에 있어 특수한 사례로, 8엽의 연꽃 하대대좌와 양련, 네 모퉁이에서 옆으로 뻗은 연꽃잎위의 사천왕상, 사리함 네 면에 연화좌위에 좌정한 불상, 그리고 천장의 우산모양의 보개장식이 통일신라기 공예장식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4.3. 7-8세기 보각형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미

송림사 사리기는 전형적인 보각형사리기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기단, 내부공간, 그리고 지붕의 건축구성요소도 완전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금동판을 잘라 붙여서 표현하는 공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卍)자형 난간, 연꽃잎 장식의 천개 및 번(幡)형식의 장식은 7세기의 건축술과 상장(牀帳)의 모습을 충실히 표

현하였다.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는 보각형사리기 중 건축표현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으며, 이는 7세기를 신라의 건축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감은사 사리기 또한 송림사와 마찬가지로 상장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하였는데, 기둥의 죽절표현, 난간의 문비, 감실의 신장상은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교하고 화려한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감은사의 교리적 배경인 법화경 보탑품을 건축의장적 요소로 표현하였다. 문양장식에 있어서 연화문, 인동당초, 화염문, 불상, 영락장식 등 동시대의 미술사적 문양장식이 거의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기와 전 남원 발견 금동사리기는 보각형에서 상정형으로 전개되는 중간단계로 건축형식 및 구조는 간략화 되어 표현되었으나, 건축의장 및 장식요소는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불국도의 이상을 표현하는 식물문양과 불상의 혼용표현, 하늘위로 부드럽게 날고 있는 연꽃과 불상조각, 그리고 그 사리기를 덮고 있는 사모지붕과 보주는 간략화된 또 하나의 7-8세기 신라시대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7-8세기 신라 사리장엄에 표현된 건축의장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7-8세기 신라 보각형사리기는 건축형태인 전각의 모습을 공예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으로, 기단부, 내부공간부, 지붕부의 3단계 구성으로 건축구성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송림사사리기와 감은사 동·서탑사리기는 고대 건축실내에서 사용되는 상장(牀帳)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난간의 구성은 안압지발견 난간부재와 같은 형식으로, 통일신라의 만(卍)자형 난간의 시기가 7세기에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은사 동·서탑 사리기는 가람과 쌍탑, 그리고 사리장엄의 조성에 있어 그 교리적 배경이 법화경 보탑품의 이불병좌를 묘사하였다. 난간과 문비, 감실, 번, 당, 그리고 장식에 이르기 까지 충실하게 경전에 묘사된 탑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기단구조, 이중난간, 기둥, 지붕의 구성에 이르기 까지, 가장 완벽한 건축표현을 하였으며, 내부에 사리를 중심으로 불상을 배치함으로 내부공간묘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화문, 인동당초, 화염문, 불상, 영락장식 등 동시대의 문양장식을 가장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넷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기와 전 남원 발견 사리기는 전각형태의 사리기에서 상자형태의 사리기로 발전하는 중간단계

23)신대현, 앞의 책, pp.419~422

의 사리기형식이며, 건축형태 및 구조적 표현보다는 의장 및 장식표현을 통하여 장엄을 하였다. 남원 사리기의 경우 마치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천상의 불국을 형상화 하였는데, 이는 사리장엄 중 유일한 형태이다. 두 사리기의 각 면에 장식된 연꽃, 보상화, 인동당초문은 전통창호에 사용된 여러 식물문양과 같아 당시대의 창호장식연구의 모형이 된다.

다섯째, 한국의 고대 사리장엄은 현실적으로 묘장에 사용되는 관함형 위주로 발전한 중국과는 다르게, 보다 이상적이고 천상의 불국을 묘사하는 전각(건축)형의 보각형사리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건축구성의장 표현에 있어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건축구성적용과 함께 다양한 건축장식 요소의 표현은 사리장엄이 단순히 사리를 보관하는 함이 아닌 부처를 모시는 불전과 같은 기능임을 보다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2003
2.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해안, 2003
3.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4.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5. 김봉건 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6. 박인근,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
7.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8. 강우방,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1993
9.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도서출판 김문사, 1991
10.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11. 신대현, 韓國 古代 舍利莊嚴의 樣式 研究-특히 寶閣形 舍利器의 발생과 전개에 대하여, 文化史學 17, 2002
12. 장충식, 금동보륜탑의 조사, 『考古美術』 136·137합집, 1978

<접수 : 2007. 4. 30>